

#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 I.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1

---

#### II. FTA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 / 4

---

- |    |                         |
|----|-------------------------|
| 4  | 1. FTA를 통한 우리기업 수출여건 변화 |
| 10 | 2. FTA를 통한 우리기업 투자여건 변화 |
| 13 | 3. 다자 FTA 추진과 해외 산업계 동향 |

#### III.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 17

---

첨부. 2015 KOTRA 발간자료 목록

## 요 약

우리나라는 '14년 말 기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영토를 73.5%로 확대하였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기준 또한 62.9%로 확대되었고,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04년 칠레와의 FTA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FTA 10년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도출하여 앞으로 FTA가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기체결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및 EU와의 FTA처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세안이나 인도와의 FTA는 아직 대다수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 홍보 및 교육 등의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FTA 및 협상 진행 중인 다자 FTA를 연계한 FTA 네트워크 활용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FTA 네트워크 확대에 의한 해외분업구조 개편과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가능성 등에 따라 우리기업의 최적 해외진출 전략 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칠레,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그동안의 양자 FTA는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교역증대와 교역품목 다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페루, 터키 등과의 FTA는 각각 중남미와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최근 발효했거나, 발효를 앞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의 FTA와, 베트남 및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서도 새로운 비상구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유망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 변화는 교역에 비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글로벌 생산지 결정에서 FTA를 통한 배타적 특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의 투자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외국기업들의 사례에서는 투자유치 등 연계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PP, RCEP 등 다자간 FTA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비한 참여국 산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FTA 체결국 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역내 누적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효율적 해외생산체제 구축,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루트 및 모델 개발을 통한 기업의 FTA 활용성과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I.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우리나라는 '14년 말 기준 총 52개국과 14건의 FTA를 체결

○ 이 중 발효된 FTA는 10건, 국가 수는 48개국

|                             |   |  |
|-----------------------------|---|--|
| <p>① 발효<br/>(10건 48개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 ('04.4월)</li> <li>· 싱가포르 ('06.3월)</li> <li>· EFTA* ('06.9월)</li> <li>· ASEAN ('07.6월 상품)<br/>( '09.5월 서비스)<br/>( '09.9월 투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10.1월)</li> <li>· EU ('11.7월)</li> <li>· 페루 ('11.8월)</li> <li>· 미국 ('12.3.15)</li> <li>· 터키 ('13.5월)<br/>( '14.9.18 서비스투자 협정 가서명)</li> <li>· 호주 ('14.12월)</li> </ul>   |
| <p>② 타결<br/>(5건 5개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2월 정식서명</li> <li>- '15년 연내 발효예상</li> </ul> </li> <li>·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3.11 타결</li> <li>- '15.1.1일 발효 예정</li> </ul> </li> <li>·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5월 제 1차 협상</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1.10일 실질 타결</li> <li>·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 6월 협상개시</li> <li>- '14.11.15일 타결</li> </ul> </li> <li>·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9월 제1차 협상</li> <li>- '14.12.10일 실질타결</li> </ul> </li> </ul>   |
| <p>③ 협상 중<br/>(6건 26개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7월 제1차 협상</li> <li>- '14. 2월 제7차 협상 후 중단</li> </ul> </li> <li>· 한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월 제1차 협상</li> <li>- '14.11월 제6차 협상</li> </ul> </li> <li>·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월 제1차 협상</li> <li>- '14.12월 제5차 협상</li> <li>- '15년 연내 협상타결 목표</li> </ul> </li> <li>·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2월 SECA협상개시</li> <li>- '07.12월 FTA협상개</li> <li>- '08. 6월 제2차 협상 후 중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12월 협상개시</li> <li>- '04.11월 제6차 협상 후 중단</li> <li>- '09.12월 제4차 협상 재개</li> <li>- '10. 9월 제1차 국장급협의</li> <li>- '11. 5월 제2차 국장급협의</li> <li>- '12. 4월 제1차 과장급 실무협의</li> <li>- '12. 5월 제2차 과장급 실무협의</li> <li>- '12. 6월 제3차 과장급 실무협의</li> </ul> </li> <li>· G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7월 협상개시</li> <li>- '09.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li> </ul> </li> </ul>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 GCC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바레인

□ (경제영토\*)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영토는 73.5%\*\* , 세계3위

\*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 총합 ÷ 전 세계 GDP, \*\* 기 발효 및 타결된 국가 모두 포함 시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순위는 14위나, 경제영토 기준으로는 3위(13년 GDP 기준)
  - \* 경제영토 순위 : ① 칠레(85.1%), ② 페루(78.0%), ③ 한국(73.5%), ④ 멕시코(63.6%), ⑤ 코스타리카(63.5%)
  - 미국·EU·아세안·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

□ (교역비중) FTA 체결국(52개국)과의 교역비중은 62.9%(14.10월 기준)

- FTA 체결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13년 기준 13.3조 달러1)
  - 전 세계 수입시장의 71.2%, 인구는 43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60.3%
- 우리나라의 FTA 10년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 도출
  - FTA를 통한 관세절감 효과는 연간 80억불로 추산 (무역협회, '14.3월)

< 우리가 체결한 FTA 주요 성과\* (기발효 FTA 중심으로) >

| FTA 구분 | 발효일                     | 주요결과   |
|--------|-------------------------|--|
| 한-칠레   | '04.4.1                 | · [교역] U\$16억('03) → U\$71억('13), 연평균 16.3% 증<br>· [수출품목수] 938개('03) → 1,562개('13), 66.5% 증가       |
| 한-EFTA | '06.9.1                 | · [교역] U\$29.1억('05) → U\$88.5억('13), 연평균 14.9% 증<br>· [수출품목수] 1,171개('05) → 1,517개('13), 29.5% 증가 |
| 한-아세안  | '07.6.1<br>(상품협정 발효 기준) | · [교역] U\$618억('06) → U\$1,353억('13), 연평균 11.8% 증<br>· [수출품목수] 5,179개('06) → 6,031개('13), 16.5% 증가 |
| 한-인도   | '10.1.1                 | · [교역] U\$122억('09) → U\$176억('13), 연평균 9.6% 증<br>· [수출품목수] 2,762개('09) → 3,001개('13), 8.7% 증가     |
| 한-EU   | '11.7.1                 | · [교역] U\$922억('10) → U\$1,051억('13), 연평균 4.4% 증<br>· [수출품목수] 4,347개('10) → 4,563개('13), 5.0% 증가   |
| 한-미국   | '12.3.15                | · [교역] U\$667억('11) → U\$1,035억('13), 연평균 1.4% 증<br>· [수출품목수] 4,526개('11) → 4,769개('13), 5.4% 증가   |

\* 한-싱가포르 FTA는 아세안과 중복, 한-페루 FTA는 교역량 미미, 한-터키 FTA는 발효기간('13.5월 발효) 짧아서 제외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협회 통계자료 이용 KOTRA 종합

1)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의 성장 및 최근 트렌드」, Trade Brief No.70, (서울:한국무역협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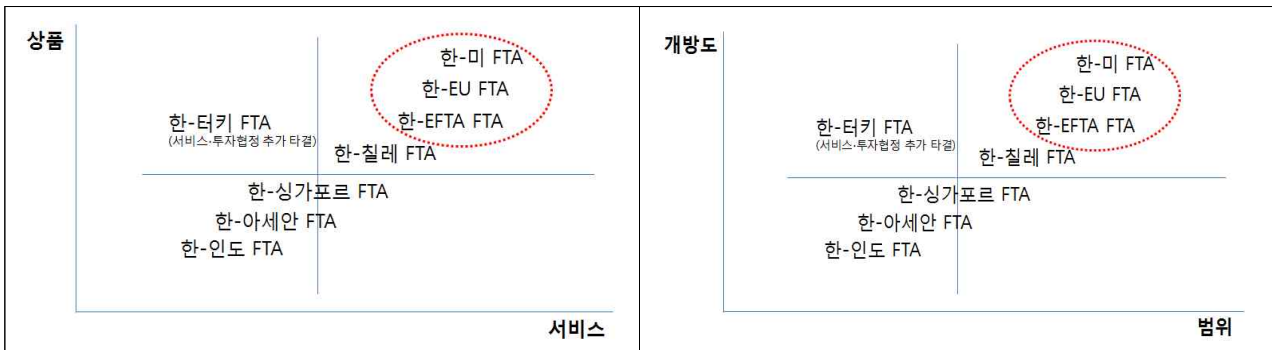
□ 기체결 FTA의 범위, 개방도 및 활용률 평가

- (범위) 상품관세 철폐 +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

| FTA 체결국 | 기본(상품·서비스·투자) | 정부조달, 지적권, 규범 | 기타            |
|---------|---------------|---------------|---------------|
| 칠레      |               |               |               |
| 싱가포르    |               |               | 전자상거래, 협력     |
| EFTA    |               |               | 협력            |
| 아세안     |               |               | 협력            |
| 인도      |               |               | 지적재산권         |
| 미국      |               |               |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
| EU      |               |               | 전자상거래, 환경     |

자료원 : Inkyo Cheong, 「Performance of Korea's 10 Year FTA Policy」,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 (Coverage & Quality) 선진 경제권과의 FTA일수록 범위와 개방도 모두 높아



자료원 : Inkyo Cheong, 「Performance of Korea's 10 Year FTA Policy」,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 (FTA 활용률\*) 수출기업 평균 66.9%, 대기업(76.9%) ≫ 중소기업(57.3%)

\* 정의 :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된 품목 ÷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

- (현황) 현재 발효된 9건의 FTA 대상 조사결과,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은 66.9%(13.11월말 기준)로 전년 대비 4%p 상승

- (지역별) EU(80.9%), 미국(76.4%), EFTA(80.5%)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활용률은 높은 반면, 아세안(38.5%), 인도(43.0%) 등과의 FTA 활용은 저조

\* 사유 : 낮은 개방도(즉, 관세양허 수준 낮음),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등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57.3%) 보다 대기업(76.9%)의 활용률 훨씬 높아

| 구분   | 칠레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터키   | 전체   |
|------|------|------|------|------|------|------|------|------|------|
| 대 기업 | 82.7 | 95.6 | 57.7 | 48.9 | 84.3 | 98.1 | 84.5 | 73.1 | 76.9 |
| 중소기업 | 70.6 | 67.9 | 29.6 | 35.4 | 76.4 | 56.3 | 69.2 | 66.6 | 57.3 |
| 전체   | 78.4 | 80.5 | 38.5 | 43.0 | 80.9 | 92.0 | 76.4 | 70.2 | 6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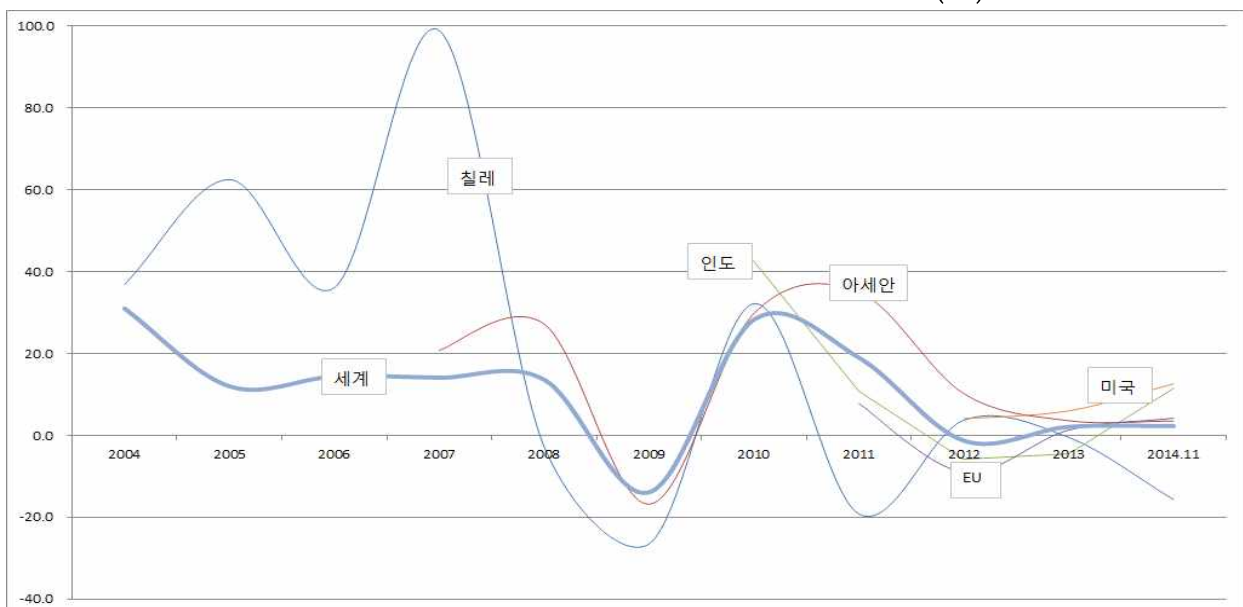
주 : '13.11월말 기준 FTA 수출 활용률(%) 기준, 자료원 : 관세청

## II. FTA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

### 1. FTA를 통한 우리기업 수출여건 변화

- 우리나라는 교역의 6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FTA네트워크 구축
  - 양자간 FTA 뿐 아니라, 이들 FTA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우리기업의 특혜무역 역내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
    - FTA네트워크 확대로 인한 해외분업구조 개편과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가능성 등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최적 전략 도출 가능
  - FTA를 통해 우리 수출은 양적팽창과 질적 성장을 경험
    -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증가,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
  - FTA 체결 대상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전체 수출 증가율 대비 높은 편
    -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대부분의 FTA가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율에 비해 체결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높은 편
    - 단, '08년 금융위기 시 글로벌 수요위축, 인도 및 EU와의 FTA는 각각 낮은 시장개방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평균보다 낮은 추세였으나, 최근 회복세

< 우리나라의 對FTA 체결국 수출증가율 (%) >



○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큰 역할

- 우리나라의 FTA 체결이 전무했던 '03년 대비 '13년 10대 수출 대상국에 베트남, 인도 등이 신규 진입

< 우리나라의 FTA체결 전후 수출대상국 변화 >

| 순위 | 2003년 |          | 2013년 |          |
|----|-------|----------|-------|----------|
|    | 국가명   | 금액(백만달러) | 국가명   | 금액(백만달러) |
| 1  | 중 국   | 35,110   | 중 국   | 145,869  |
| 2  | 미 국   | 34,219   | 미 국   | 62,052   |
| 3  | 일 본   | 17,276   | 일 본   | 34,662   |
| 4  | 홍 콩   | 14,654   | 홍 콩   | 27,756   |
| 5  | 대 만   | 7,045    | 싱가포르  | 22,289   |
| 6  | 독 일   | 5,603    | 베트남   | 21,088   |
| 7  | 싱가포르  | 4,636    | 대 만   | 15,699   |
| 8  | 영 국   | 4,094    | 인도네시아 | 11,568   |
| 9  | 말레이시아 | 3,852    | 인 도   | 11,376   |
| 10 | 인도네시아 | 3,378    | 러시아   | 11,149   |

□ 칠레,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에 큰 기여

- 한-칠레 FTA 발효 이전 양국 교역액은 16억달러('03년)였으나, 10년간 연평균 16.3% 증가하여 '13년에는 71억달러로 확대
  - 같은 기간 수출품목 수도 938개('03년)였다가 1,562개('13년)로 증가하여 **FTA 활용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에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
  - 유럽 이민계가 주류인 소비시장에서 구축한 우리제품 브랜드와 신뢰도를 중남미 인접국가로 확산 역할
  - 다만, '06년 발효된 중-칠레FTA로 우리수출의 FTA 효과 희석
    - \* 우리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 : 2.8%(발효 전) → 6.8%('07) → 3.3%('12)
- 한-아세안 FTA는 **교역량 증가,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모두 실현하였으나, 활용률은 최하위에 머물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발효 전 교역액 618억달러('06)에서 발효 후 1,353억달러로 증가('13년)
  - 우리 수출품목 수는 5,179개('06년)에서 6,031개로 증가('13년)
  -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도 증가 : 4.8%('04 → 6.1%('13)



- 확대되는 중산층, 한류인기 등을 활용한 아세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추가시장 개방 등 FTA 개선 필요
- 그러나, 중국시장 및 대미·유럽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생산기지로의 활용가치는 크가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 터키 등은 우리 신규 수출유망시장으로 부상**

- **한-베트남 FTA는 그동안 우리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로만 여겨지던 베트남을 유망시장으로 재조명**
  - 최고 30%에 이르는 베트남의 수입관세 철폐가 예정된 가전제품, 최고 20%의 관세가 없어지는 대표적 한류상품 화장품 등이 **베트남 소비 시장을 적극 공략할 전망**
  -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 기대
  - 양국 교역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는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생산기지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아세안 FTA 및 아세안 역내자유화를 연계, 우리기업 해외생산기지 전략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 '15년 내 비준완료 후 발효 예상
  
-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제품의 새로운 중남미시장 교두보 확보 의미**
  - 지속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및 자원개발 등 대형사업 이어져 기존 자동차 및 부품 위주의 우리 수출이 건설중장비, 건설자재 등으로 확대 기대
  -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우리기업과의 협력분야 증가 예상
  - 중산층 확대와 최근 한류인기에 힘입어 가전,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증가 예상
  - 콜롬비아는 미주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대서양과 태평양 항구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물류거점으로 활용 가능
  - '14년 양국 비준완료로 '15년 내 발효 전망
  
- **한-페루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 FTA 수혜품목이 FTA 발효(11.8월) 1년차에 51.1%, 2년차에 11.0% 수출증가
- FTA 활용률도 92%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 가장 높은 수준
- 자동차, 의약품 등의 수출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일본과의 시장선점 경쟁에서도 FTA를 앞서 발효함으로써 유리한 위치
- 페루는 FTA를 많이 추진하는 국가로서 상호 FTA 네트워크를 연계한 공동시장 확대 가능

○ 한-터키 FTA를 통해 우리의 유럽 수출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 내수시장 진출확대 (상품협정 발효 '13.5월)

- TV, 에어컨, 냉장고 등은 FTA 발효 이후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며 사실상 독주체제 구축
- 공작기계 등은 유럽산과 경쟁중이나,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우위
- 자동차는 자체 내수시장 보다 유럽 수출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 광학제품은 터키의 발전하는 전자산업 수요와 연계되어 약진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기술협력, 인력교류, 우리상품의 테스트마켓 기능으로 활용 가능

○ 캐나다와는 자원개발(세일가스 등), IT/SW,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 유망

- 캐나다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 위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세제혜택, 규제개선 등 도입

\* (세일가스) 매장량 세계 5위, 대규모 가스전이 있는 서부캐나다 중심으로 플랜트·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활발

\* (오일샌드) 매장량 세계 2위, 총 99,270km의 송유관 운영

- 캐나다 IT 벤처기업들은 기업용 S/W에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여 구글, 애플 등 굴지 기업들의 인수대상 → FTA 비자발급 요건완화 등을 통한 인적교류, M&A 등을 통한 기술협력 확대 기회

- 다수의 미국 영화 및 미디어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하여 영상 보정 및 수정, 3D 작업, 캐릭터 삽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바,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의 캐나다 정부 지원책, NAFTA를 통한 미국과의 자유로운 인력 교류를 활용하여 경쟁력 확보

- 한-호주 FTA를 통해 호주는 발효 5년 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등의 관세는 즉시철폐 → **대양주 시장으로의 본격 진출** 기대
  - 일-호주 FTA보다 앞선 발효로 호주 시장 내 일본과의 경쟁여건 개선
  -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제작에 대한 공동 협력으로 중국, 동남아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모색
  
-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뉴질랜드의 3대 유망산업**(건설, 내수소비, 1차산업) **진출 확대 기회** 모색
  - 건설·건축자재, 건설중장비, 화장품 등 한류 생활용품, 1차산업 관련 농기계, 포장기계 등이 유망 수출품목
  - 영어사용, 구미식 사회제도 등으로 **미국 및 유럽시장으로의 본격 진출에 앞서 테스트 시장\***으로 적합

\* 작은 영토와 다양한 인종(market segmentation), 낮은 시장진입장벽 등
  
- **한-EFTA FTA 및 한-인도 CEPA**를 통해서는 교역규모는 늘렸으나,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는 한계 노정
  - 우리나라와 EFTA와의 교역은 FTA 발효 이전('05년) 29.1억달러에서 88.5억달러('13년)로 늘고, 우리 수출품목 수도 1,171개에서 1,517개로 증가
    - 그러나 EFTA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진출확대로 우리제품의 점유율은 정체
  - 인도와의 교역량은 CEPA 발효 전('09년) 122억달러에서 176억달러('13년)로 증가
    - 수출품목 수는 같은 기간 늘었으나, 점유율은 소폭 감소
    - **인도시장 내에서의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격화**, 인도 경제 개발 본격화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자동차, IT 등 기업간 협력수요 증가에 따라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공단 조성'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
  
- **한미FTA와 한-EU FTA**를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양적증가 뿐 아니라 여타 산업 및 경제로의 효과 확산 실현

- 한-미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567억달러('11년)에서 622억달러('13년)로 9.8% 증가(연평균 4.8%)
  - 그 중 FTA 수혜품목은 166억달러('11년)에서 214억달러('13년)로 28.3% (연평균 13.3%) 증가하여 FTA 효과를 입증
  -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증가율은 0.8%, 대중 수출증가율은 8.7%
  
- 한-EU FTA 발효 후 양국 교역량은 922억달러('10년)에서 1,051억달러('13년)로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확대
  - \* 시장점유율 (발효 전)2.6%→2.1%('12년), 우리나라 무역적자 10억달러('12년)→74억달러('13년)
  -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원인으로는 유로존 경기침체, 유로화 약세, 유럽산 자동차 수입 증가 등임.
  
- 미국 및 EU와의 FTA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 확대
  - 자동차 및 부품, 화학, 전자, 기계류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직간접적 수출 참여 증가
  - \* FTA 발효 후 중소기업의 대미수출과 대EU 수출증가율 각각 9.2%, 18.9%(출처 : 중소기업청)
  - 피해산업으로 꼽혔던 농수산식품의 대미수출도 발효 2년 간 13.2% 증가
  
- 체결국 내 우리 국가인지도 상승 등 연계효과
  - 유럽 바이어들은 한-EU FTA로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 개선에 동의
  - \* 한국의 국가브랜드 개선효과에 71.7% 동의, 한류 등 대중문화(27.5%)보다 기업 이미지 개선(73.3%)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14.5월, 유럽 18개국 바이어 360개사 대상 설문조사, KOTRA)<sup>2)</sup>

---

2) KOTRA, 「한-EU FTA 및 국가브랜드 바이어 반응조사」, (서울:KOTRA, 2014)

## 2. FTA를 통한 우리기업 투자여건 변화

□ 모든 FTA가 역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 FTA를 통한 투자촉진은 역내 국가 간 무역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적일수록 역할분담에 따른 산업 내 무역확대 및 이에 따른 투자증가를 기대
  - 교역에 대한 영향에 비해 투자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sup>3)</sup>
- 우리기업의 FTA 체결대상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체 해외투자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
  - 2000년대 들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크게 늘기 시작했으며, 주요 대상국은 해외생산기지국인 중국, 베트남 등임.
  - 대상국별 투자규모의 증감은 주로 금융위기, 환율변화 등 경제·시장 여건에 주로 기인

<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대상 최근 해외투자 추이(신고금액 기준, 천달러) >

| 국가명   | 2011       | 2012       | 2013       | 2014.9월    |
|-------|------------|------------|------------|------------|
| 칠 레   | 145,578    | 36,573     | 14,356     | 41,742     |
| 스위스   | 16,833     | 16,147     | 68,216     | 13,635     |
| 베트남   | 1,508,973  | 939,064    | 1,458,939  | 1,391,273  |
| 인도네시아 | 1,414,893  | 1,003,797  | 528,257    | 401,384    |
| 인 도   | 649,671    | 443,212    | 594,150    | 205,282    |
| 중 국   | 4,797,135  | 6,532,968  | 4,809,235  | 2,428,970  |
| 독 일   | 396,474    | 61,699     | 268,414    | 82,449     |
| 프랑스   | 140,095    | 47,021     | 84,434     | 62,631     |
| 폴란드   | 59,603     | 40,023     | 30,407     | 57,753     |
| 헝가리   | 1,265      | 413        | 38,151     | 309        |
| 미 국   | 16,581,453 | 6,917,674  | 5,864,158  | 6,257,030  |
| 전 체   | 45,723,333 | 39,483,805 | 35,728,309 | 22,897,360 |

자료원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 생산지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중 FTA활용은 배타적 특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업의 사례들이 증명

3) 김형주,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아직 불확실」, LG Business Insight 2014.3.26. (서울:LG경제연구원, 2014)

□ **섬유 및 전자 업종에서는 TPP 등 다자간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 강화 추세**

- **섬유업체 한세실업은 TPP 타결 등에 대비하여 베트남 현지투자 확대**
  - 미국의 '얀포워드(Yarn Forward)\*' 원칙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 내에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일관체 구축에 적극적

\* 원사에서부터 모든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베트남 현지 생산체제 강화로 미국시장 공략에 더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
- **삼성전자, LG전자도 대규모 베트남 투자 단행하며 TPP 등에 대비 중**
  -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휴대폰 공장 생산물량을 늘리는 한편, 호치민 인근 공단에 13억달러 규모의 복합가전 공장 건설에 착수
  - LG전자는 '14년말 북부 하이퐁에 15억달러 투자하여 대규모 가전공장 완공 예정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움직임에도 변화 감지**

- 락앤락은 '14년 국내 아산공장 생산을 중단함과 동시에 중국공장 생산 비중을 줄이는 대신 베트남 공장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육성 중

□ **한국타이어와 삼성전자는 FTA를 해외생산의 Supply Chain 효율화에 활용**

- **헝가리 생산 공장의 부품 조달선을 한국으로 전환하여 한-EU FTA 역내 원산지 비율 충족 → EU 역내 수출경쟁력 확보**
  - 기존 중국산 부품을 한-EU FTA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산으로 전환하여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제고

- **한국산 부품조달에 따른 관세절감분은 현지 생산능력 향상에 재투자**
  - 역내 생산 확대로 이어져 헝가리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혜까지 이어져

□ **CJ오쇼핑은 한-아세안 FTA로 개방된 베트남 홈쇼핑 시장에 진출, 한국제품 공급 확대**

- '11.7월 개국 후, 베트남 홈쇼핑 시장 70% 장악, 점유율 압도적 1위 고수
  - 연간 매출 증가율 100% 이상, 연간 300억 원 규모

- FTA를 통한 관세인하를 활용, 2012년부터 한국 중소기업 제품구성 비중 확대 (연간 30억원 이상)

□ 일본과 구미기업들도 우리나라의 FTA를 활용하는 사례 증가

- 우리나라의 FTA는 우수인력 및 기술을 갖춘 산업기반, 중국·일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 미국, 유럽시장 진출을 노리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효과
  - 중국 내 인건비 등 가격 인상으로 고심하는 구미기업의 중국 대체 생산지로 부상
- 일본 제조 기업들은 한미FTA,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및 확대 전략
  - 나카무라토메社는 엔고영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유럽시장을 목표로 2012년 한국에 공장 신설
  - 츠루미펌프社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동시에 관세절감, 리드타임 단축을 목표로 2013년 한국에 공장 설립
  - 아사히카세이社는 한-인도 CEPA를 활용하여 인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생산시설 증설
- 美 하우저社는 중국 대체생산지 모색 중 한미FTA 활용 위해 한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 중국 생산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사실상 대미수출 불가
  -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미국의 수입관세(3.4%) 인하에 주목하여 중국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이전 후 한국 생산제품 전량을 미국으로 수출
- 美 알버말社는 아시아지역 R&D 센터 및 공장 신축지 결정에 한-미 FTA에 따른 일본 및 중국대비 이점에 주목
  - 일본은 높은 물가와 간접비용, 중국은 기술유출 우려로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수행에 문제점
  -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 본사로부터의 원활한 원자재 공급, 지적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여수공장 신축 결정

### 3. 다자 FTA 추진과 해외 산업계 동향

□ 양자 FTA 외에 우리나라는 한중일FTA,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추진 중

- 한중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 '13.3월 협상 개시
  - '14.11월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상품양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전
  - 한-중 FTA 타결로 탄력을 받아 '15년에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
- 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상품양허, 정부조달, 지적권, 노동, 금융, 의료 등 포괄적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3.11월 참여 관심 표명
  -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 '14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일 간 자동차·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 참여국 간 지적권, 국영기업 이슈 합의 실패

#### < 주요 분야별 협상 진전 상황 >

| 분 야   | 협상 진전 상황  |
|-------|---|
| 상 품   | - 일본은 5개 민감 품목(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보호를 원하고,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br>- 미국은 일본 자동차 시장 비관세장벽 철폐 및 세이프가드 권한을, 일본은 미국 자동차시장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                      |
| 지적재산권 | - 미국 등이 의약품 지적재산권, 특허권 강화를 요구<br>-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복제약 생산에의 영향,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반대   |
| 국영기업  | - 미국은 민간·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지원 철폐 주장<br>-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신흥국은 국영기업(SOE) 보호를 위해 우대 철폐를 대신하여 국영기업의 내부 감사 강화, 예외분야 설정 등을 제시 |
| 환 경   | - 기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  |
| 투 자   | - 기업이 배상을 요구하여 외국정보를 고소할 수 있는 『투자가와 국가의 분쟁 해결 조항(ISDS)이 쟁점』   |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역내 국가간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 '15년 협상타결 목표

< 분야별 주요 협상내용 >

| 분 야           | 주요 협상 내용   |
|---------------|--|
| 상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접근</li> <li>- 원산지 규정</li> <li>-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li> <li>- 무역 구제</li> <li>-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li> <li>-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li> </ul> |
| 서비스·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자유화 방식</li> <li>- 협정문 기본 요소에 대한 논의</li> </ul>  |
| 경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의 촉진</li> <li>- 경제 효율</li> <li>- 소비자 복지</li> <li>- 반경쟁 관행의 단축</li> </ul>  |
| 지적재산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의 활용, 보호 및 집행의 경제 통합과 협력 촉진</li> </ul>   |
| 경제 기술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상거래 포함</li> </ul>  |
| 분쟁해결 및 제도적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 제공</li> <li>- 제도적 규정 준수</li> </ul>   |
| 기타 무역 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조달</li> <li>- 중소기업</li> <li>- 무역 및 환경</li> </ul>   |

□ 다자간 FTA 추진으로 역내 공동시장 확대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참여국 산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 감지

- 베트남은 TPP, RCEP 등을 통해 섬유 의류 산업의 부흥 기대
  - 양포워드 원산지 규정적용에 대비, 원부자재 산업육성과 관련부문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 중
  - 특히 베트남의 취약부문인 방직과 염색가공 설비부문에 신규투자 및 확대투자 추진
  - FTA 기회 활용을 위해 브랜드 육성, 유통체계 구축 등 기업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일본 기계 산업은 중국-아세안-인도를 연결하는 공급망 확대전략 모색**
  - 중국에서 제조한 부품을 인도에서 조립하여 아세안 시장에 판매하는 역내 생산전략 가능한 것으로 분석
  
- **중국은 국내 과일생산 해소를 위해 중남미와 아세안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 '13년 기준 중국의 2위 투자 대상지는 아세안이며, TPP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참여국을 통해 중남미를 전략적 해외투자 대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
  
- **말레이시아는 다자 FTA를 통해 전자 및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전략**
  - 일본 등 글로벌 메이커의 동남아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자체 산업기반을 육성하여 미국 및 중국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의지
  
- **태국은 물류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의지**
  - 지리적 위치, 아세안 국가 내 산업기반 등을 충분히 활용 가능
  
- **TPP에 참여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업 강국은 일본, 캐나다 등의 시장개방 여부에 촉각**
  - 쇠고기 등 육류, 낙농제품 분야의 거대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매우 적극적인 의사 표명
  
- **의약품 관련 지적권 보호 연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 이외 참여국으로 입장이 양분되어 팽팽하게 대결**
  - 다국적 의약기업이 포진한 미국, 일본 등은 제네릭 약품 제조제한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업의 지식자산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
  -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대다수 국가의 의약업계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잠식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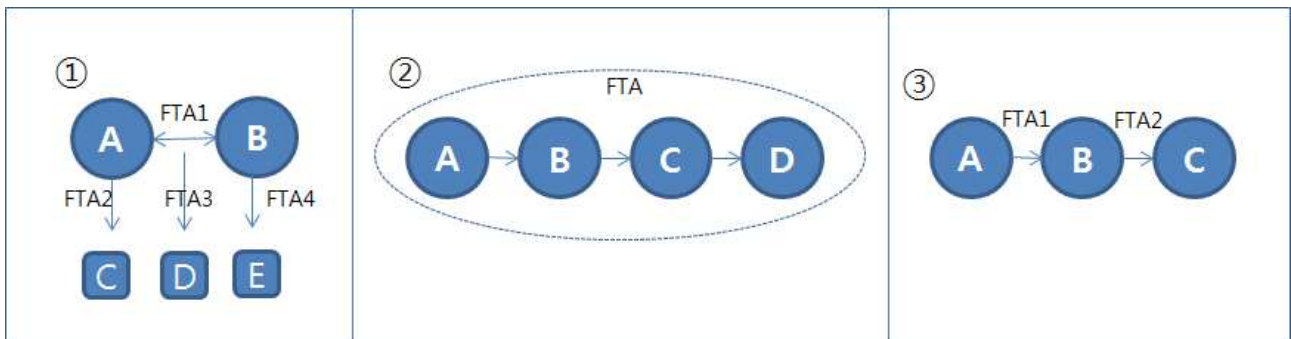
< 우리가 체결한 FTA 활용 포인트 >

| FTA 구분 | 발효(타결)일                 | 활용포인트   |
|--------|-------------------------|---|
| 한-칠레   | '04.4.1                 | -FTA체결 10년간 구축한 현지시장에서의 우리제품 브랜드 및 신뢰도를 중남미 인접국가로의 확산효과 기대  |
| 한-EFTA | '06.9.1                 | -중국제품과의 경쟁구도 개선 여지  |
| 한-아세안  | '07.6.1<br>(상품협정 발효 기준) | -우리기업의 전략적 해외생산기지로 활용<br>-향후 FTA 고도화를 통한 신규 유망시장으로 기대   |
| 한-인도   | '10.1.1                 | -CEPA 개선을 통한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여건 개선기대<br>-IT 등 양국 기업 간 제휴 및 협력 가능  |
| 한-EU   | '11.7.1                 | -FTA를 통한 국가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효과 최대<br>-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 M&A 등 현지화전략 구사 가능                                  |
| 한-페루   | '11.8.1                 | -우리 수혜품목에 대한 시장개방도 높은 편(활용률 92%)<br>-자원확보 뿐 아니라, 중남미 신규 유망시장 개척로로 활용  |
| 한-미국   | '12.3.15                | -국가이미지 및 인지도 활용, 중국과의 가격경쟁 개선<br>-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 M&A 등 현지화전략 구사 가능                                 |
| 한-터키   | '13.5.1                 | -유럽시장 본격진출 위한 관문으로 활용 (EU-터키 간 관세동맹)<br>-터키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전자 등 분야에서는 부품소재 수출확대 가능  |
| 한-호주   | '14.12.12               |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주력품목 대양주시장 본격 확대<br>-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간 기술협력   |
| 한-캐나다  | '15.1.1                 | -자원개발, 항공/우주, 생명과학, IT, 디지털콘텐츠 등에서 기업 간 기술협력, M&A 등을 통한 시너지 제고<br>-NAFTA를 활용한 미국 등 제3국 공동진출 모색<br>-식품류 등 신규유망상품 수출 확대 |
| 한-콜롬비아 | '13.2.21<br>(타결)        | -건설플랜트, 인프라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 참여<br>-의료, 교육 등 국가성장기반 프로젝트 대상 수출확대<br>-중상류층 소비자 대상 소비재 수출 기회                              |
| 한-중국   | '14.11.10<br>(실질 타결)    |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공략<br>-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시장 진출강화<br>-동북아 공동시장 확대를 전략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
| 한-뉴질랜드 | '14.11.15<br>(타결)       | -건설, 1차산업 관련 중장비, 설비류, 포장재 등 수출유망<br>-화장품, 아이디어 생활용품 등 중심으로 新한류시장 기대  |
| 한-베트남  | '14.12.10<br>(실질타결)     | -한-아세안FTA 및 아세안 역내자유화를 연계, 우리기업 생산기지 전략 시너지 효과 제고<br>-중기제품 및 한류제품 중심으로 신규유망시장으로 부상                                    |

### Ⅲ.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 FTA별 활용전략, 전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해외진출 모색 필요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활용전략 수립 시급
  - FTA 네트워크를 통한 역내 공동시장 확대, 역내 분업화 전략을 통한 글로벌 가치 창출 가능
- ①FTA 체결국 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②역내 누적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효율적 해외생산체제 구축, ③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확대 등이 가능



□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산업계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유리한 경쟁여건 조성

- 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경쟁국 산업계 동향을 벤치마킹
  - 아세안, 중남미 등 전략시장에서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협력을 통한 경쟁력 배가 모색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효율적 자원분배, FTA 등 배타적 특혜조건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계하는 장기적 관점 필요
- 정부는 개발협력사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 측면지원 필요
  - FTA 네트워크를 통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틀로 기능
  - 특히, 신흥시장은 해당국 내 네트워크 구축,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기업의 본격 진출 전 시장진출 기반으로 활용 가능

□ 최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 무역원활화란,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관련 절차나 제도 등을 간소화·표준화하는 것을 뜻함.
  - WTO는 무역과 관련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로 해석
  - '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출범시켰으며, DDA 타결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4.11월 타결
  - WTO 출범 이후 최초 타결된 협정으로 WTO 회원국 2/3 이상 찬성을 통해 발효 예정

< WTO 무역원활화 협정 주요 합의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
| 무역관련 규정 명확화 | ·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무역 규정의 공표 및 시행) 등 GATT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 |
| 세관협력        | ·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 세관 당국 간 협력 강화   |
| 개도국 특별대우    | · 협정상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지원 능력배양 강화   |

- 우리 주력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정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중이어서 협정 이행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으며, 협정 발효 시 개도국의 통관 절차 개선과 무역비용 감소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

## 2015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GMR (Global Market Report)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15-001 |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 2015.1 |
| 15-002 |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 2015.1 |

KOCHI자료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15-001 |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 2015.1 |

KOTRA자료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15-001 |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 | 2015.1 |

설명회자료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15-001 | 2015 주요 전략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 2015.1 |
| 15-002 | 2015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 2015.1 |



작성자

◆ 통상지원총괄팀 양은영 팀장



## Global Market Report 15-003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lobal Market Report